

SK텔레콤 (017670)

SKT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1. 5G 실체가 없으며 초기 도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최근 5G 관련주의 주가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5G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 5G 킬러 서비스 부재로 5G 성공을 확실하기 어렵고 제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물론 현재까지만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올 여름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5G 장비들이 출시되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고 6월 주파수 경매 이후 5G CAPEX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서비스 상용화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킬러서비스 역시 IoT(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와 차세대미디어(UHD/VR)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통신사 경영진 역시 5G 성공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는 왜 금년 6월 주파수 경매에 28GHz 대역까지 나오는 것인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신사가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경매에 부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5G는 모든 사물을 무선으로 구동하려는 생각으로 기획된 최초의 네트워크이며 엄청난 트래픽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5G 서비스 개시에 맞춰 네트워크 장비, 단말기, 콘텐츠 등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상용화와 더불어 트래픽 증가/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이 당연하다. 3G는 예상보다 늦게 시장에 출시되었고 4G는 당초 예상과 비슷한 시점에 선보인 반면 5G는 당초 예상보다 1년 6개월이 당겨져서 상용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5G 실체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젠 5G를 폄하하기보다 5G 서비스에 왜 전세계 정부까지 나서서 통신사 투자를 독려하는지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통신요금인하 이슈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신정부 통신요금인하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보편요금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며 노년층 요금인하 역시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후퇴된 상태로 마무리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결국 신정부 통신요금인하는 당초 하나금융투자에서 예측한대로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25% 상향 조정과 취약계층 요금인하를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매우 커졌다. 법적으로 볼 때 애초에 신정부의 인위적 통신요금인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다. 일부에선 과기부의 6월 임시국회 보편요금제 상정 및 정기국회 논의를 우려하는 데 1~2%의 가능성까지도 체크리스트에 넣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펴는 투자자들이 과연 주식투자 성향인지를 반문하고 싶다. 상식선에서 보면 이제 국내 통신업종의 요금인하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으며 6월 가뭄이 나올 것은 전혀 없다. 이젠 인위적 통신요금인하라는 막연한 우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Update

BUY

| TP(12M): 320,000원 | CP(3월 28일): 22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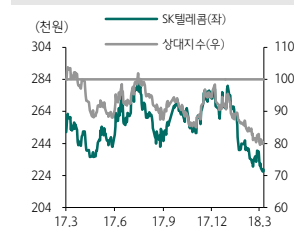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2,419.29
52주 최고/최저(원)	283,500/226,500
시가총액(십억원)	18,288.9
시가총액비중(%)	1.52
발행주식수(천주)	80,745.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7.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4.3
18년 배당금(예상, 원)	11,000
18년 배당수익률(예상, %)	4.86
외국인지분율(%)	40.28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3인	25.22
국민연금	9.02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5.6) (12.0) (13.1)
상대	(5.3) (13.7) (22.3)

Consensus Data

	2018	2019
매출액(십억원)	17,583.7	17,784.3
영업이익(십억원)	1,578.0	1,641.6
순이익(십억원)	2,866.4	2,818.5
EPS(원)	35,141	34,441
BPS(원)	283,196	311,740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5	2016	2017P	2018F	2019F
매출액	십억원	17,136.7	17,091.8	17,520.0	17,106.0	17,293.7
영업이익	십억원	1,708.0	1,535.7	1,536.6	1,664.9	1,667.1
세전이익	십억원	2,035.4	2,096.1	3,403.2	4,007.2	3,918.8
순이익	십억원	1,518.6	1,676.0	2,599.8	3,065.6	2,996.3
EPS	원	18,807	20,756	32,198	37,966	37,107
증감률	%	(15.7)	10.4	55.1	17.9	(2.3)
PER	배	11.46	10.79	8.29	5.97	6.10
PBR	배	0.99	0.99	1.07	0.81	0.74
EV/EBITDA	배	5.03	5.18	5.70	4.77	4.40
ROE	%	10.21	10.74	15.38	16.12	14.06
BPS	원	216,875	225,796	248,964	278,185	305,673
DPS	원	10,000	10,000	10,000	11,000	11,000



Analyst 김홍식

02-3771-7505

pro11@hanafn.com

RA 성도훈

02-3771-7541

dohunsung@hanafn.com

그림 1. 투자자들이 5G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UHD/VR, IoT/자율차,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5G 킬러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는 양상
2	통신사 경영진 최근 5G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상황
3	한국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 예정
4	올 가을 5G 네트워크장비 본격 출시 예정
5	5G 단말기 올해 연말 출시 예정
6	통신사 올 하반기 이후 5G CAPEX 집행 예정

자료: 하나금융투자

그림 2. 보편 요금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1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함
2	야당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안임
3	야당에서 통과시켜줘 봐야 노이즈만 많고 실익 없음
4	과방위 소속 위원 중 과반 찬성 가능성 사실상 "0"

자료: 하나금융투자

3. 5G 주파수 경매 과열 가능성 있다?

6월 주파수 경매 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주파수 가격은 예상보다 낮아질 공산이 크다. 물론 총 경매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 경매에 부쳐지는 주파수 할당 폭이 워낙 크고 그 중 상당부분을 통신사들이 실제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위당 주파수 가격은 크게 하락할 공산이 크다. 그 이유는 1) 고주파 특성상 전파 특성 계수가 좋지 않아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주파수 가격 산정에 반영될 전망이고, 2) 주파수 가격이 높아지면 통신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언론들의 질타가 많아 과기부가 5G 예상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3) 특정 통신사가 특정 대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슈가 없어 2016년과 마찬가지로 최저할당가격으로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확보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3. 주파수 할당 가격이 당초 우려보다는 낮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

- 1 고주파수의 전파특성계수 좋지 않음, 주파수 가격은 전파특성에 비례
- 2 국회/소비자단체 주파수 가격 인하 목소리 높음, 5G 예상 매출액 보수적 산정 전망
- 3 주파수 경매 방식 무기명 블록 입찰 방식이 유력한 상황

자료: 하나금융투자

4. SKT 물적 분할된다고 해도 주가 상승 어렵다?

한편 일부에선 SKT가 물적분할한다고 해도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하나금융투자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현재 SKT 주가가 기업분할 기대감으로 상승한 상태가 아니고 당초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인적분할보다 물적분할이 훨씬 더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1) 인적분할의 근본적인 약점인 SK(주)와 중간지주회사와의 합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2) 통신부문이 비상장사로 내려가고 중간지주사가 사업회사로 전환할 경우 통신부문 이익 노출을 피할 수 있어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기가 원활해지며, 3) 물적분할 후 SKT와 SK하이닉스가 배당 성향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중간지주사 배당금 지급 중대가 예상되고, 4) 자회사 배당금 유입분 및 신규 사업 영위를 통한 현금흐름 창출을 바탕으로 중간지주회사가 신규 ICT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성장성 부각이 기대되고, 5) SK하이닉스와 SK플래닛의 가치를 드러내기가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그림 4. SKT 물적분할이 소액주주에게 큰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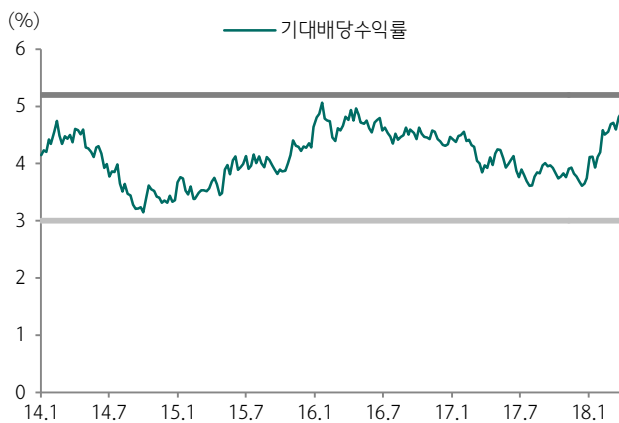
- 1 SK(주)와 중간지주회사와의 합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
- 2 SK하이닉스와 SK플래닛의 가치를 드러내기가 원활해짐
- 3 통신부문이 비상장사, 중간지주사가 사업회사로 전환할 경우 정부규제완화 기대
- 4 현금흐름 창출을 바탕으로 중간지주회사가 신규 ICT 사업 발굴에 나서 성장성 부각이 기대

자료: 하나금융투자

5. 금리 상승기라 배당수익률 부각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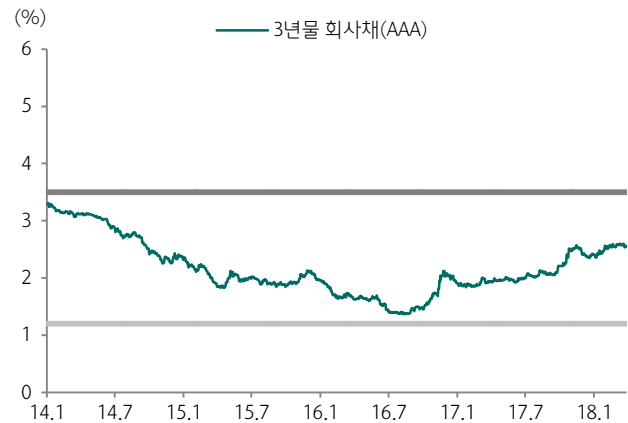
금리 상승기이므로 SKT의 높은 배당수익률이 부각되기 어렵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그러면 역으로 금리 하락기에 SKT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어 수급상 불리하다. SKT의 고배당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려면 시중 금리가 SKT 배당수익률대비 절대적으로 낮으면서도 경기 상승 기대감이 낮아야 한다. 여기에 배당수익률이 3%를 초과하는 상장기업이 많지 않으면 더욱 좋다. SKT에 매수세가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 금리 및 경기 전망을 감안할 시 여전히 SKT 투자 매력도는 높다.

그림 5. SKT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Wisefn, 하나금융투자

그림 6.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추이



자료: 인포맥스, 하나금융투자

6. 유통구조 개편 가능성 높지 않고 SKT에 호재가 아니다?

분리공시제/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비롯한 유통구조 개편이 SKT 호재로 볼 수 없다는 의견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브랜드 인지도대비 유통 경쟁력이 낮은 업체들의 M/S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오프라인 영향이 줄어들고 영업직원의 영업력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제된 알뜰폰 가입자가 다시 증가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통신 3사 모두 개선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특히 SKT엔 대형 호재이다. 과거 단통법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통신사를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발사업자인 SKT의 경우엔 사실상 가입자 뺏기보다는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업자라 유통상 리베이트 감소는 큰 수혜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러한 이유로 유통구조 개편에 찬성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시 각 주체별 영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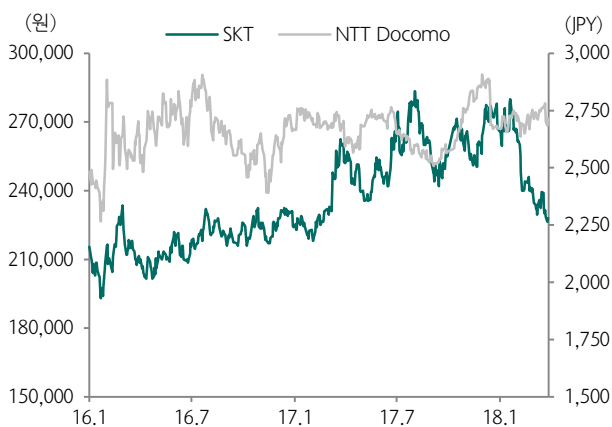


자료: 하나금융투자

7. 해외 통신사 주가가 부진해 SKT 주목 받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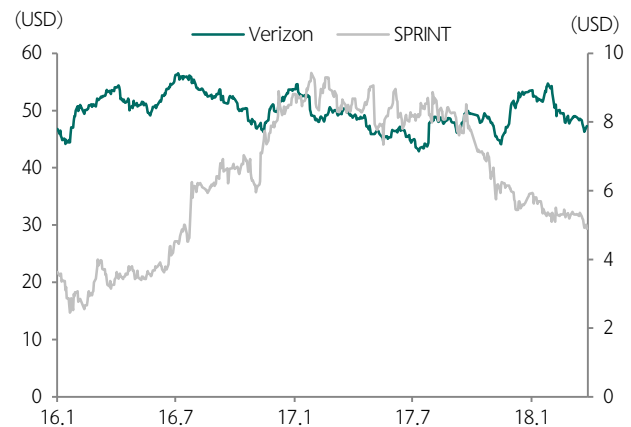
해외 통신사 주가 부진이 국내 통신사 주가 상승을 짓누를 수 있다는 의견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과거에도 글로벌 통신사 주가 동향은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 국가별, 통신사별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 규제 상황, 네트워크 진화 속도, 경쟁 환경, 업계 재편, 자회사 실적 등 주가에 미치는 변수가 모두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신업계에서의 글로벌 화두는 5G, M&A, ICT 사업 강화, 보조금 정책 변화 및 유통구조 개편이다. 이렇다고 볼 때 국내 통신사가 해외 통신사 주가를 쫓아갈 가능성은 낮다. 5G 글로벌 선도업체가 국내 통신사, 특히 SKT이고 유통구조 개편 역시 국내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 통신사 주가를 글로벌 통신사들이 장기적으로 쫓아갈 가능성이 높아 해외 통신사 분석을 통한 국내 통신사 주가 예측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림 8. 한국 SKT/일본 NTT Docomo 주가 추이



자료: Quantwise, Factset, 하나금융투자

그림 9. 미국 버라이즌/미국 스프린트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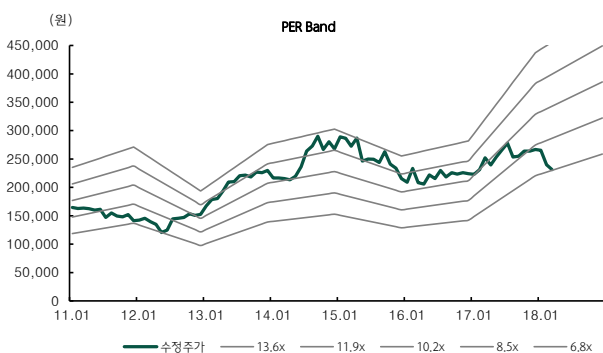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Factset, 하나금융투자

매수/TP 32만원으로 유지, 오해를 풀고 적극 매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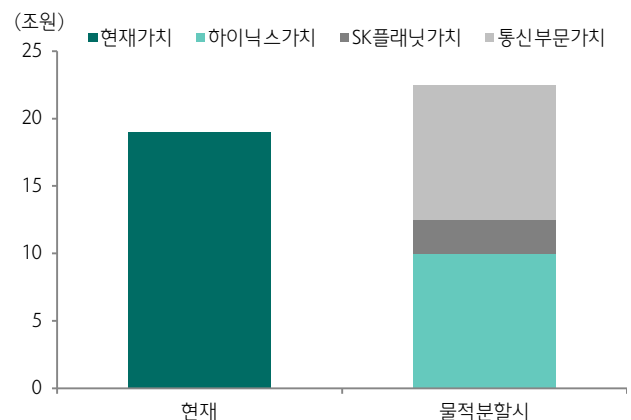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7가지 이유를 근거로 SKT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통신서비스 업종 Top Pick으로 제시한다. 2018년 기대배당수익률이 4.9%에 달해 주가 하방 경직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 주가 수준으로 볼 때 5G/물적분할/CATV M&A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실적 전망치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12개월 목표 주가는 기존의 32만원을 유지한다.

그림 10. SKT PER 밴드 추이



자료: Wisesn, 하나금융투자

그림 11. SK텔레콤 물적 분할 시 적정 시가 총액



자료: 각사, 하나금융투자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5	2016	2017P	2018F	2019F
매출액	17,136.7	17,091.8	17,520.0	17,106.0	17,293.7
매출원가	0.0	0.0	0.0	0.0	0.0
매출총이익	17,136.7	17,091.8	17,520.0	17,106.0	17,293.7
판매비	15,428.7	15,556.1	15,983.4	15,441.1	15,626.6
영업이익	1,708.0	1,535.7	1,536.6	1,664.9	1,667.1
금융손익	(246.2)	248.2	(67.1)	(162.9)	(146.9)
중속/관계기업손익	786.1	544.5	2,245.7	2,702.6	2,596.0
기타영업외손익	(212.6)	(232.3)	(312.1)	(197.4)	(197.4)
세전이익	2,035.4	2,096.1	3,403.2	4,007.2	3,918.8
법인세	519.5	436.0	745.7	920.9	900.7
계속사업이익	1,515.9	1,660.1	2,657.6	3,086.3	3,018.2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1,515.9	1,660.1	2,657.6	3,086.3	3,018.2
비지배주주지분 손이익	(2.7)	(15.9)	57.8	20.7	21.9
지배주주순이익	1,518.6	1,676.0	2,599.8	3,065.6	2,996.3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522.3	1,433.0	2,597.2	2,705.0	2,645.3
NOPAT	1,272.1	1,216.3	1,200.0	1,282.3	1,284.0
EBITDA	4,701.5	4,604.3	4,784.1	4,993.1	4,995.3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0.2)	(0.3)	2.5	(2.4)	1.1
NOPAT증가율	(12.7)	(4.4)	(1.3)	6.9	0.1
EBITDA증가율	(0.3)	(2.1)	3.9	4.4	0.0
영업이익증가율	(6.4)	(10.1)	0.1	8.3	0.1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15.7)	10.4	55.1	17.9	(2.3)
EPS증가율	(15.7)	10.4	55.1	17.9	(2.3)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EBITDA이익률	27.4	26.9	27.3	29.2	28.9
영업이익률	10.0	9.0	8.8	9.7	9.6
계속사업이익률	8.8	9.7	15.2	18.0	17.5

대차대조표	(단위: 십억원)				
	2015	2016	2017P	2018F	2019F
유동자산	5,160.2	5,996.6	6,201.8	6,603.2	8,547.3
금융자산	1,606.2	2,140.4	2,281.7	2,495.8	4,358.6
현금성자산	768.9	1,505.2	1,457.7	1,895.8	3,758.6
매출채권 등	3,031.2	3,369.1	3,394.7	3,513.7	3,587.8
재고자산	273.6	259.8	272.4	343.6	350.9
기타유동자산	249.2	227.3	253.0	250.1	250.0
비유동자산	23,421.1	25,301.0	27,226.9	27,363.4	27,713.1
투자자산	8,343.0	8,514.0	10,730.8	10,535.5	10,553.3
금융자산	1,446.7	1,109.7	1,192.3	997.0	1,014.9
유형자산	10,371.3	10,374.2	10,144.9	10,476.7	10,808.5
무형자산	4,213.4	5,708.8	5,502.0	5,502.0	5,502.0
기타비유동자산	493.4	704.0	849.2	849.2	849.3
자산총계	28,581.4	31,297.7	33,428.7	33,966.6	36,260.4
유동부채	5,256.5	6,444.1	7,109.1	6,529.3	6,583.0
금융부채	1,083.3	1,279.8	1,992.1	1,990.8	1,991.4
매입채무 등	3,389.3	4,260.1	4,508.2	3,903.7	3,986.0
기타유동부채	783.9	904.2	608.8	634.8	605.6
비유동부채	7,950.8	8,737.1	8,290.4	7,029.1	7,028.8
금융부채	6,650.0	6,478.8	5,819.1	5,819.1	5,819.1
기타비유동부채	1,300.8	2,258.3	2,471.3	1,210.0	1,209.7
부채총계	13,207.3	15,181.2	15,399.5	13,558.3	13,611.8
지배주주지분	15,251.1	15,971.4	17,842.1	20,201.6	22,421.2
자본금	44.6	44.6	44.6	44.6	44.6
자본잉여금	2,915.9	2,915.9	2,915.9	2,915.9	2,915.9
자본조정	(2,726.4)	(2,716.1)	(2,719.6)	(2,719.6)	(2,719.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9.3	(226.2)	(234.7)	(234.7)	(234.7)
이익잉여금	15,007.6	15,953.2	17,835.9	20,195.4	22,415.0
비지배주주지분	123.0	145.0	187.1	206.6	227.4
자본총계	15,374.1	16,116.4	18,029.2	20,408.2	22,648.6
순금융부채	6,127.1	5,618.3	5,529.4	5,314.1	3,4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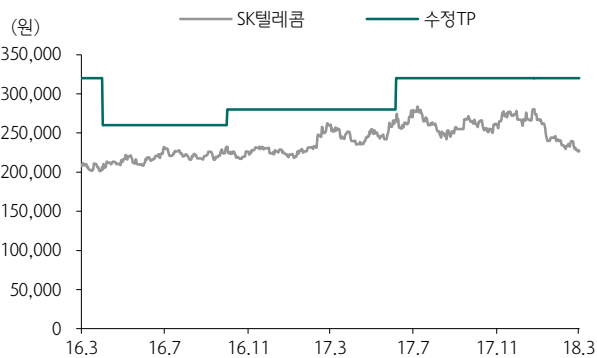
투자지표	2015	2016	2017P	2018F	2019F
주당지표(원)					
EPS	18,807	20,756	32,198	37,966	37,107
BPS	216,875	225,796	248,964	278,185	305,673
CFPS	59,025	58,203	58,881	92,863	93,154
EBITDAPS	58,226	57,022	59,250	61,837	61,864
SPS	212,231	211,675	216,978	211,850	214,175
DPS	10,000	10,000	10,000	11,000	11,000
주가지표(배)					
PER	11.5	10.8	8.3	6.0	6.1
PBR	1.0	1.0	1.1	0.8	0.7
PCFR	3.7	3.8	4.5	2.4	2.4
EV/EBITDA	5.0	5.2	5.7	4.8	4.4
PSR	1.0	1.1	1.2	1.1	1.1
재무비율(%)					
ROE	10.2	10.7	15.4	16.1	14.1
ROA	5.4	5.6	8.0	9.1	8.5
ROIC	8.6	7.9	7.6	8.0	7.7
부채비율	85.9	94.2	85.4	66.4	60.1
순부채비율	39.9	34.9	30.7	26.0	15.2
이자보상배율(배)	5.7	5.3	5.1	8.2	5.3

자료: 하나금융투자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5	2016	2017P	2018F	2019F
영업활동 현금흐름	3,778.1	4,243.2	3,855.8	4,410.2	6,353.5
당기순이익	1,515.9	1,660.1	2,657.6	3,086.3	3,018.2
조정	2,947.9	2,569.3	1,459.7	3,351.1	3,363.7
감가상각비	2,993.5	3,068.6	3,247.5	3,328.2	3,328.2
외환거래손익	(0.3)	(1.1)	1.3	0.0	0.0
지분법손익	(786.1)	(544.5)	(2,245.7)	0.0	0.0
기타	740.8	46.3	456.6	22.9	35.5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685.7)	13.8	(261.5)	(2,027.2)	(28.4)
투자활동 현금흐름	(2,880.5)	(2,462.2)	(3,070.6)	(3,241.8)	(3,679.0)
투자자산감소(증가)	(962.2)	(171.0)	(2,216.7)	195.3	(17.9)
유형자산감소(증가)	(2,442.2)	(2,467.9)	(2,686.5)	(3,660.0)	(3,660.0)
기타	523.9	176.7	1,832.6	222.9	(1.1)
재무활동 현금흐름	(964.6)	(1,044.8)	(826.6)	(730.3)	(811.7)
금융부채증가(감소)	653.0	25.4	52.5	(1.3)	0.6
자본증가(감소)	0.0	0.0	0.0	0.0	0.0
기타재무활동	(949.1)	(364.1)	(173.0)	(22.9)	(35.6)
배당지급	(668.5)	(706.1)	(706.1)	(706.1)	(776.7)
현금의 증감	(65.5)	736.3	(47.5)	438.1	1,862.8
Unlevered CFO	4,766.0	4,699.7	4,754.4	7,498.3	7,521.8
Free Cash Flow	1,299.4	1,752.7	1,140.0	750.2	2,693.5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SK텔레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17.7.3	BUY	320,000		
16.10.28	BUY	280,000	-15.47%	-5.00%
16.4.28	BUY	260,000	-15.79%	-10.77%
16.2.22	BUY	320,000	-35.68%	-34.06%
15.4.27	BUY	340,000	-29.78%	-13.68%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0.9%	8.5%	0.6%	100.0%

* 기준일: 2018년 3월 27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18년 3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18년 3월 29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